

“안마태 정음” 입력기와 자판의 과학적인 배열에 대한 설명

최학선

지난 2006 년 11 월 20 일부터 22 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 중문 신신(정보)학회 제 6 차 전국 회원 대표 대회 및 성립 25 주년 학술 회의>에 중국 조선어 정보 학회 현용운회장님의 추천으로“중문 신신(정보) 처리 중대 성과전”에 참가하여 우리의 중국어 입력기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님과 대표님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아주 흥미있게 우리가 ‘안음’입력기에 대한 설명과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회의에서 설명한 내용을, 특히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을 글로 써서 한글을 배우려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안마태 신부님이 그 분들의 요구대로 훈민정음의 소개글을 한문으로 쓰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안마태 신부님이 들려주신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과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읽고 제 나름대로 한문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고문이신 김진용 교수님의 수정을 거쳐 우리 웹사이트의 관련자료 23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http://www.ahnmatae.org/common/documents/article-23.pdf>)

문장 끝 부분의 배열에 대한 부분을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의 순서에 의한 배열:

자음의 배열:

	基本音	強迫音	爆破音	翹舌音
喉音	ㅇ		ㅎ	
牙(舌根)音	ㄱ, ㄴ	ㄲ, (ㄴㄴ)	ㅋ	(ㄹㅇ)
舌(舌頭)音	ㄴ, ㄷ	ㄸ	ㅌ	
齒音	ㄷ, ㅌ	ㄸ, ㅌㄸ	ㅊ	(ㄹㅇ), (ㅇㄹ), (ㅇㄹ)
唇音	ㅍ, ㅂ	ㅃ	ㅍ	(ㅇㅂ)

음양의 순서에 의한 배열:

모음의 배열 :

	基本音	基本音+ ㅏ	基本音+ ㅑ	基本音+ ㅓ	基本音+ ㅕ	基本音+ ㅗ
ㅏ	ㅏ ㅑ ㅓ ㅕ	ㅑ ㅓ ㅕ ㅗ				
ㅑ						
ㅓ	ㅓ ㅕ ㅗ ㅑ	ㅑ ㅓ	ㅕ	ㅗ	ㅑ	ㅓ

여기서 중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국어 입력기의 소개에 편하도록 제 나름대로 자음 ‘ㄹ’을 아음에 넣었고 그리고 현대어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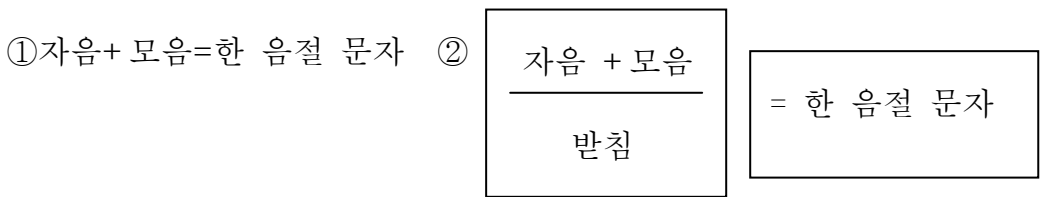
중국어의 표기에 필요한 자음 ‘ㄹ, ㄴ, ㅇ, ㄷ, ㄱ’를 추가해 넣었습니다.

제가 훈민정음 자모의 배열을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우선 글은 사람의 소리를 적는 문자이므로 사람의 소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람을 제 1순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사람의 목구멍에서부터 울려 나오고 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내는 소리가 ‘아’이기 때문에 목구멍 소리인 ‘ㅇ’를 첫자리에 배열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향의 순서를 사람들이 좌, 우와 상, 하의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천, 지, 인과 음양오행을 훈민정음에서 적용한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왼쪽, 오른쪽을 우선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땅을 지상, 지하의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배열표를 만들고 그 배열표를 놓고 유심히 보니 신통하게도 안마태 입력기의 배열과 너무나 많은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마태 입력법의 배열이 과학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고 100 여번의 수정을 거쳐 바꾼 배열이 자연적으로 사용빈도의 배열에도 꼭 들어 맞고 인체에도 가장 적응이 되는 배열이므로 자리를 익히고 타자를 배우기가 쉽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나열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민정음의 구성원리에 부합된다.



<训民正音解例> 合字解中：初声或在中声之上、或在中声之左如‘군’字‘ㄱ’在上、‘업’字‘ㅇ’在‘ㄴ’左之类，中声则横者在初声之下‘一’是也、纵者在初声之右‘丨’是也、如‘즉’字‘一’在‘ㅈ’下、‘침’字‘丨’左‘ㅈ’右之类，终声在‘初、中’之下、如‘군’字‘ㄴ’在下、‘업’字‘ㅁ’在‘ㅇ’‘ㄴ’下之类。

때문에 자판의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 맨 밑에 받침을 배열한 것이고 그리고 소리는 사람의 목구멍에서 울려 나오기에 목구멍 소리를 제일 앞에 배열하여 자판의 왼쪽에 10개의 자음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종의 순으로 ①‘ㅇ,ㅎ’ ②‘ㄱ,ㄴ’ ③‘ㄷ,ㄴ’ ④‘ㅈ,ㅉ’ ⑤‘ㅂ,ㅍ’를 배열한 것이고 글은 사람의 소리를 적기 위해 창제되었기에 사람의 소리를 적는 글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한글의 구성 원리대로 자판의 오른쪽에 10개의 모음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종의 순으로 ①‘ㅏ,ㅑ’ ②‘ㅓ,ㅕ’ ③‘ㅗ,ㅛ’ ④‘ㅜ,ㅠ’ ⑤‘ㅡ,ㅟ’를 배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밑줄에 10개의 자음을 다시 배열하였는데 이는 한글의 사용 빈도와 입력에 편하도록 배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사람의 손가락 중에 엄지가 가장 힘이 세고 식지가 가장 재 빠르고 중지가 제일 길고 약지가 제일 느리고 소지(새끼 손가락)가 제일 힘이 약합니다. 때문에 식지로 ①과 ②, 중지로 ③, 약지로 ④, 소지로 ⑤를 입력하도록 배열한 것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받침 자리의 배열은 많은 실험과 사용자들의 의견에 의해 안마태

신부님께서 100 번 이상의 자리 바꿈을 해서 오늘의 배열에까지 온것입니다. 저도 안마태 자판을 연습하면서도 3 번의 자리 바꿈으로 타자 연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의 배열이 제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엄지로 가장 편하게 ‘ㄱ’와 ‘ㅈ’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받침에 많이 쓰이는 ‘ㄱ’과 ‘ㄴ’을 엄지가 자연스럽게 자판에 올려 놓았을때의 자리에,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ㅂ’와 ‘ㅍ’, ‘ㄷ’과 ‘ㄹ’를 엄지를 조금씩 안쪽으로 모아서 입력하는 것으로 또 두 자음의 글꼴이 비슷하여 자판의 양측에 서로 대칭되는 자리에 배열하여 두 손의 엄지가 받침을 입력하는 느낌을 기억하는 것으로 연습한다면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침 자리의 배열을 만약에 왼손 자리에 Z-ㅈ, X-ㅂ, C-ㄷ, V-ㄱ, B-ㅇ으로 오른손 자리에 N-ㅅ, M-ㄴ, ,-ㄹ, .-ㅍ, /-ㅎ로 배열하였다면 더욱 훈민정음의 원리에 맞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사용 빈도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생각으로만 남겨 두려고 했었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재삼 생각하게 된것은 실제 받침 자를 입력할때에 생기는 문제들 예: ‘ㄹㅎ’ 받침자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이의 입력을 새끼 손가락으로 ‘ㅎ’와 ‘ㄹ’를 동시에 입력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지므로 지금의 배열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안마태 입력기의 배열에 맞춰서 훈민정음의 배열표를 만든것이 아니라는것, 그리고 과학적인 것은 비과학적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안마태 입력기의 배열이 사용 빈도에 의하여 100 여 번의 자리바꿈을 거친 것이지만 오직

훈민정음의 원리에 맞았을 때 만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열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훈민정음은 컴퓨터 시대에 가장 알맞은 과학적인 글씨 체계이며 안마태 입력기의 배열은 훈민정음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2007년 2월 25일 초고.

2007년 5월 15일 수정.